

오차대에서의 교환유학

부산외국어대학교

조희주

한국의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1년간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온 조희주라고 합니다. 2 학기는 1 학기보다 더욱 빠르게 지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 1년간 일본에 다니는 오지 않을 사람처럼 누구보다 일본을 즐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대단한 것을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일본에서 도전하고 싶었던 것을 모두 이뤄냈기에 후회 없는 1년을 보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번 체험 작문에는 제가 이뤄낸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 학기에는 ‘도토루’라는 일본의 카페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아 걱정이 앞섰지만, 이 1년간은 뭐든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컸기에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도전은 저에게 일본에서의 취업을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일에 적응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같이 일하는 직원분은 혼내시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며 친절하게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 일본에서의 취업은 어려우리라 생각했던 제가 일본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짧지만 귀중한 4 개월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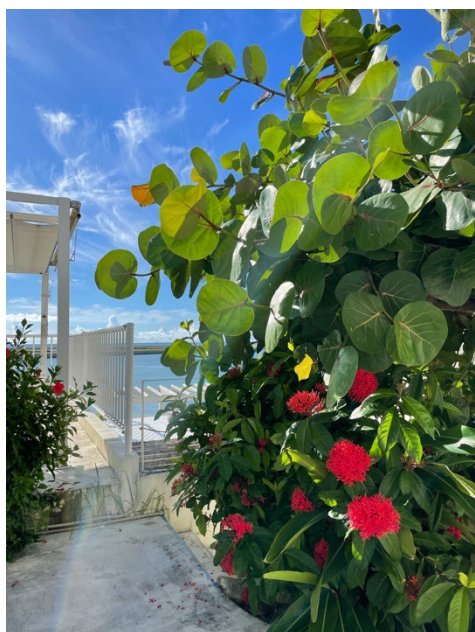
두 번째로 어렵더라도 학과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학기에는 심리학과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전공은 일본어이고 심리에 관한 수업은 교양으로 들어본 것이 다였기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부분을 검색해보는 중에 심리학 공부는 물론 일본어 공부도 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일본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이번 2022 년이 학창 시절의 마지막이었기에 공부는 물론 많이 경험해보자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오키나와, 겨울에는 홋카이도, 나가사키,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요코하마

등 일본에서 가고 싶었던 곳을 원 없이 다녀왔습니다. 또한 동아리 합숙에서 바베큐와 불꽃놀이를 하거나 오차대 축제 뿐만 아니라 동경대 축제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1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한 경험을 통해 저는 일본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일본에서의 취업도 꿈꾸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도 교관이신 사카모토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니시자카 교수님 수업을 듣기 전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교수님의



말씀 덕에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과 오노씨, 기숙사 관리인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들은 수업 담당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